

세종지역학센터 소식지

# 세종 '네' 컷

제9호 (2026년 09월)

세종지역학 소식지

# <세종 '네'컷> 목차

## (첫 번째 컷) 요즘 우리 세종시


- 잊혀진 '연기'의 아픔, '세종'의 기억으로 품다
- 118년의 유산, '조치원 복숭아'의 내일
- 예술이라는 핑계로 마주 앉다, '공통명사'
- 세종중앙공원에 들어서는 한글예술 공간
- 무심코 걷던 산책길에서 반곡리의 기억을 만나다
- 공동체로 완성하는 세종의 안전망
- 청년이 뿌리내리는 세종
- [지역학센터가 만난 예술가] '예술봄소리' 이지선 대표


## (두 번째 컷) 세종지역학센터의 나날


- <세종학 팝업 세미나> 가네코후미코 서거 100주기 추모 위령제
- 세종지역학센터-충북학연구소 업무협약 및 협력 세미나 개최
- 세종의 이야기를 모으는 김영순 마을기록가

세종지역학 소식지

# <세종 '네'컷> 목차

## (세 번째 컷) 알알이 고운 세종

- 조치원 필름 로맨스
- 조치원에 'ㄱ'이 생겼다
- (세종시 지역작가) 장승아 개인전 '사이사이'

## (네 번째 컷) 세종의 물결 너머

- 부산에서 마주한 세계유산, 세종 지역학의 내일을 그리다
- 유산에서 산업으로, 지역의 기억을 미래의 자원으로
- 지역의 기록을 담는 그릇 – 대전 아카이브 포럼
- 제주에서 만난 지역문화의 새로운 활용법

## 부록

① 금남 대평시장에서 점심을

② (세종시 지역작가) 이채론 개인전 '월인천강지곡: 그 강에 비친 달은 하나'

③ 이재민의 '문화로 만난 세종'

첫 번째 컷!

# 요즘 우리 세종시 ①

- 잊혀진 '연기'의 아픔, '세종'의 기억으로 품다
- 118년의 유산, '조치원 복숭아'의 내일
- 예술이라는 핑계로 마주 앉다, '공통명사'
- 세종중앙공원에 들어서는 한글예술 공간

세종지역학센터

# 잊혀진 '연기'의 아픔, '세종'의 기억으로 품다

## 제12회 세종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제

세종지역학센터는 지난 7월 7일 산울동에서 열린 '제12회 세종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제' 현장을 찾았다. 한국전쟁 당시 세종에서도 연기군 남면 고정리 은고개를 비롯해 서면 월하리, 조치원읍 서창리 등 곳곳에서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 행복도시 세종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 남아 있는 아픈 기억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현재 갖고 있는 모습 뿐만 아니라 그곳에 축적된 역사와 기억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종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가 이 땅에서 희생된 이들의 이름과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118년의 유산, '조치원 복숭아'의 내일

## 제24회 조치원 복숭아 축제

**조치원 복숭아**는 **세종을 대표하는 농업자원**이자 **118년의 역사**를 이어온 지역의 유산이다. 지난 여름 열린 '**제24회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에서는 복숭아를 활용해 파닭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파치비어나잇**' 등 야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8만 개의 다회용기를 활용해 **친환경 축제**로 운영하는 한편, 농협을 중심으로 복숭아 판매 창구를 일원화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품질 관리에도 힘을 더했다.

축제가 끝난 뒤에는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는 과정도 이어졌다. 평가보고회에서는 폭염 속 낮 시간대 프로그램 운영, 주차 공간 부족, 수확 체험 규모의 한계 등 현장에서 나타난 과제가 논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제25회 축제에서는 낮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야간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축제 운영의 변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조치원 복숭아축제가 앞으로도 세종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서 시민과 방문객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해 본다.










# 예술이라는 핑계로 마주 앉다, '공통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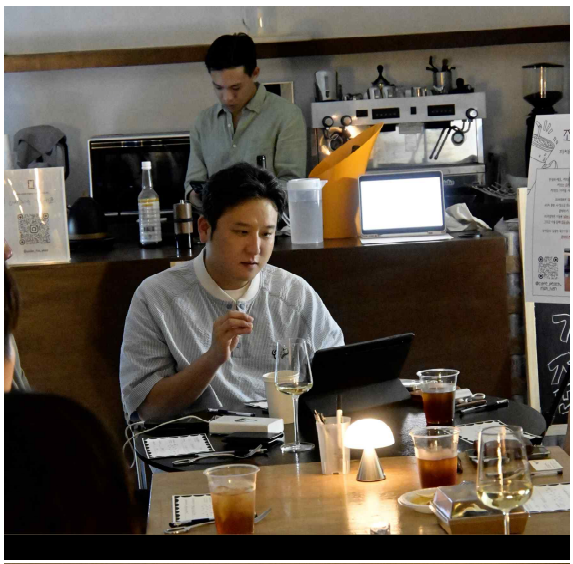
## 홍익대학교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4기

지난 8월 18일 저녁, 조치원읍의 한 공간에 예술을 해온 선배와 예술을 시작하는 후배가 모였다. **홍익대학교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4기** 예술 큐레이션 브랜드 **'예술이라는 핑계'**가 마련한 **'공통명사'**는 작품과 경험을 나누며 세대를 잇는 소규모 대화 프로그램이다.

작은 조명이 켜진 테이블 위에는 음료와 다과, 이야기를 적을 종이가 놓였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둘러앉은 참여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과 공간, 취미를 이야기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 세 가지를 고르고 요즘의 고민을 나누는 과정은 각자의 관심과 생각을 알아가는 계기가 됐다. 이어 유현 작가의 작품 소개를 통해 창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만남은 선배의 경험과 후배의 새로운 시선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가까이 마주한 풍경**에는 **'공통명사'가 지향하는 교류의 모습이** 담겼다. 예술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모인 조치원의 저녁,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며 접점을 찾아가는 자리였다.







# 세종중앙공원에 들어서는 한글예술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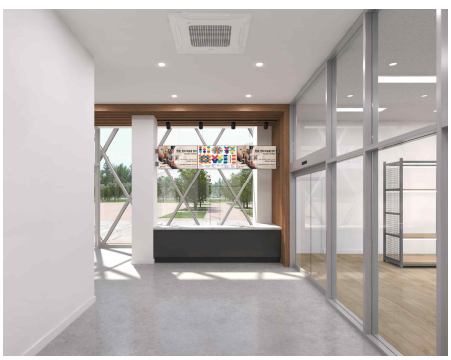
세종중앙공원에 한글을 주제로 한 예술공간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공원관리시설 1층의 관리사무소와 방문자센터,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가칭)**세종한글미술관**이다. 약 888㎡ 규모의 공간에 전시장과 개방형 수장고, 교육 · 휴게 기능을 담아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한글예술을 만나는 거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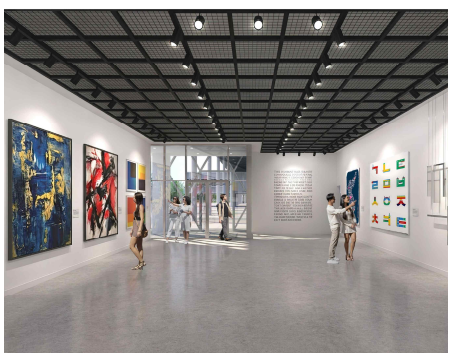
이 공간은 **2027년 한글 국제 비엔날레의 전시거점**이자, 행사 이후에도 **작품과 자료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장소**를 지향한다. 한글의 조형성을 보여주는 전시부터 미디어아트와 디자인, 시민참여 교육까지, 한글을 다양한 예술의 언어로 만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작품의 수집과 보존 과정을 공개하는 **개방형 수장고**와 공원의 산책로 · 광장을 연계한 **야외전시**도 중요한 가능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 조성과 함께 콘텐츠와 운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을 전시하고 수집할지, 누가 기획하고 운영할지, 행사가 없는 시기에는 시민과 어떻게 만날지를 구체화해야 한다. 공원을 걷다 자연스럽게 들르고, 새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만나러 다시 찾는 곳. 한글예술 공간이 세종의 문화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이제 채워가야 할 내용이다.









첫 번째 컷!

# 요즘 우리 세종시 ②

- 무심코 걷던 산책길에서 반곡리의 기억을 만나다
- 공동체로 완성하는 세종의 안전망
- 청년이 뿌리내리는 세종
- [지역학센터가 만난 예술가] '예술봄소리' 이지선 대표

세종지역학센터

# 무심코 걷던 산책길에서 반곡리의 기억을 만나다

## 괴화산 역사문화 아카데미

지난 9월 16일 열린 '괴화산 역사 · 문화 아카데미'는 우리가 매일 오가는 공간에 쌓여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심 속 쾌적한 산책로로만 여겼던 괴화산이 실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마을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만나는 자리였다.







안산뜸과 웃말뜸 등 정겨운 이름으로 불리던 옛 반곡리의 7개 마을부터 금강 나루터를 건너 학교를 오가던 아이들의 모습,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터전을 떠나야 했던 원주민들의 이야기까지. 강연을 통해 살펴본 괴화산은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옛 반곡리의 기억과 오늘날 반곡 · 집현동의 모습을 이어주는 지역의 역사문화 공간이었다.

'괴화산 역사문화 아카데미'를 통해 땅에 깃든 역사를 알게 된 시민들이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괴화산을 바라보고 자발적으로 가꾸어 나갈 때, 괴화산은 비로소 세종을 대표하는 지역 자산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 공동체로 완성하는 세종의 안전망

## 제2회 시민안전포럼

진정한 의미의 '안전 도시'는 반듯한 도로와 촘촘한 CCTV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제2회 시민안전포럼'은 세종시의 안전 패러다임이 공동체 연대를 통한 안전망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뜻깊은 자리였다.

이번 포럼이 남긴 가장 큰 화두는 행정 주도의 단선적 관리를 탈피한 '민관 협업'과 '관계의 회복'이다.

전문가들이 강조한 청소년 맞춤형 보호 대책과 취약계층 복지 연계망 구축은 결국 이웃을 향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이는 신도시 세종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해야 보이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까지 살필 수 있다는 뼈 있는 통찰이다.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위기의 순간 서로의 생명을 지키고 이웃을 보듬는 연대는 세종시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제2회 시민안전포럼에서 모인 치열한 고민들이 단단한 지역 공동체의 밑거름이 되어, 시민의 일상과 생명을 빈틈없이 품어 안는 진정한 안전 도시 세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청년이 뿌리내리는 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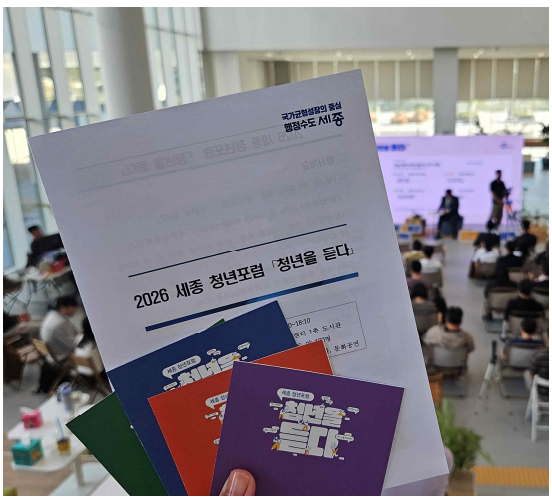
## 2026 세종 청년포럼 '청년을 듣다'

세종시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청년의 정착'**이다. 지난 16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2026 세종 청년포럼'**은 이 막중한 과제의 해답을 현장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목소리에서 직접 찾고자 한** 의미있는 자리였다. **청년은** 단순히 일자리나 주거 지원을 기다리는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창출하고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핵심 주체'다.** 이번 포럼에서 기술창업,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100여 명이 모여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조건을 주도적으로 논의한 것은, 세종시가 한층 젊고 역동적인 공동체로 성숙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는 청년이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터전이 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생명력을 얻는다.** 포럼에서 쏟아진 주거, 일자리, 문화에 대한 제안들이 실제 시정에 단단하게 스며들기를 바란다. 세종의 내일을 직접 설계해 나가는 청년들의 당찬 걸음이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풍경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기대한다.








# [지역학센터가 만난 예술가] 예술봄소리 이지선 대표

## 그림책 속에 담아낸 세종의 이야기

다원예술공연단체 **'예술봄소리'의 이지선 대표**는 **그림책을 중심으로** 국악과 서양음악, 연기, 미디어아트, 마술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한 무대에 담아내는 예술가**다. 그는 **그림책의 서사를 음악과 영상, 연기로 확장한 '그림책 음악'**을 선보이며,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을 만들어오고 있다.

8년 전 세종으로 이주한 그가 작품을 만들며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세종의 문화자원**이다. 신도시와 원도심이 함께 존재하는 세종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보고, 시민들이 지역에 조금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세종의 이야기**를 예술로 풀어내고 있다. **조치원의 '낮도깨비' 설화**와 세종을 상징하는 **'파랑새', 조치원 복숭아**를 소재로 한 **'복둥이'** 등 **지역의 문화자원을** 찾아 공부하고 이를 **창작 공연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 [지역학센터가 만난 예술가] 예술봄소리 이지선 대표

## 그림책 속에 담아낸 세종의 이야기









그가 처음 마주한 세종은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라는 인상이 컸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 안에 숨어 있던 이야기들을 발견했고, 그 이야기가 새로운 창작의 소재가 되었다. 지역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이야기를 예술로 풀어내고, 다시 시민과 나누는 것. 그에게 지역에서 예술을 한다는 것은 세종을 알아가고,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는 지역 예술가들이 시민들과 더 가까이 호흡하기 위해서는 **공연장과 연습공간 등 안정적인 문화예술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술가들이 지역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세종의 이야기 역시 다채롭게 채워질 것이다.

**세종시 공연단체 '예술봄소리'**

https://www.artbomsory.com/

(문의전화) 010-7522-2682 / 010-6564-6271

두 번째 컷!

# 세종지역학센터의 나날

- <세종학 팝업 세미나>

  가네코후미코 서거 100주기 추모 위령제
- 세종지역학센터-충북학연구소 업무협약및협력세미나개최
- 세종의이야기를모으는김영순마을기록가

세종지역학센터

# 가네코후미코(金子文子) 서거 100주기 추모 위령제

## <세종학 팝업 세미나>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서 저항했던 독립운동가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내며 국경을 넘어선 저항의식을 키워간 곳이 바로 **세종시 부강면**이다. 지난 8월 24일, 가네코 후미코 서거 100주기를 맞아 그녀의 유년 시절 흔적이 남아있는 부강면 **가네코후미코 다실 앞**에서 **추모 위령제가 개최**되었다.

**세종지역학센터와 가네코후미코 선양사업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팝업 세미나 -가네코후미코 서거 100주기 추모 위령제-**는 가네코 후미코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그녀의 어린 시절과 연결된 부강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세종시장이 참석하여 추모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지역 청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이 더해졌으며, **시민과 국내외 방문객**이 함께 자리한 뜻깊은 자리기도 했다.

100년 전 부강에서 시작된 가네코 후미코의 삶은 다시 지역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인물과 공간, 역사의 흔적을 찾아 그 의미를 오늘의 시선으로 되짚어보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세종지역학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며 세종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갈 것이다.

2026 세종지역학 팝업 세미나 -가네코후미코 서거 100주기 추모 위령제- 세종연구원 Youtube








# 가네코후미코(金子文子) 서거 100주기 추모 위령제

## <세종학 팝업 세미나>















# 세종지역학센터-충북학연구소

## 업무협약(MOU) 및 협력 세미나 개최

세종지역학센터와 충북학연구소가 8월 11일, 충청북도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 세미나를 함께 개최했다. 이번 협약과 세미나는 세종지역학의 외연을 확장하고, 충청권 지역학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공동 연구 추진, 학술대회 및 포럼 공동 개최, 연구 성과 공유와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상호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지역의 연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역사와 문화의 새로운 맥락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록과 자료의 교류는 연구를 살찌우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이번 협약과 세미나를 계기로 충청권의 지역학이 한층 더 깊고 넓은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되기를 기대한다.









# 세종의 이야기를 모으는 김영순 마을기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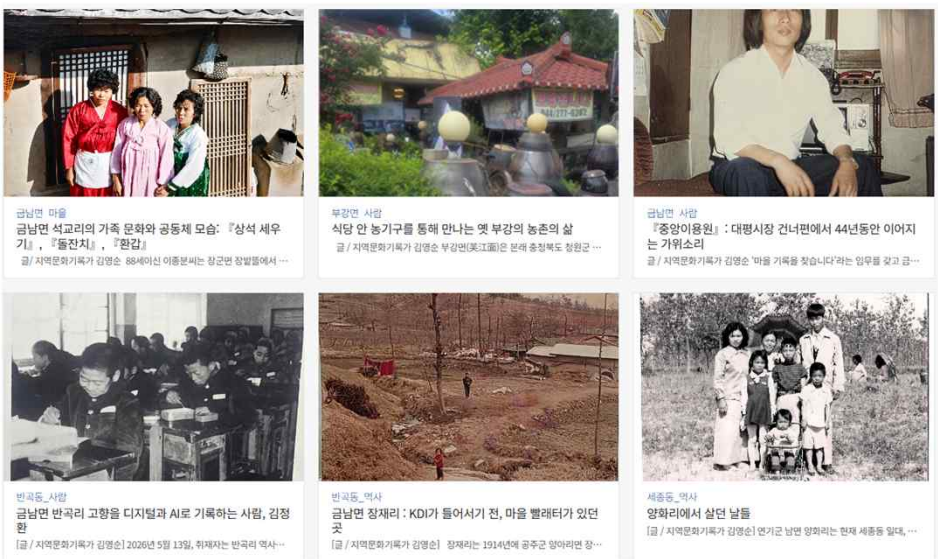
세종지역학센터는 지난 7일, 세종의 이야기를 모으는 **김영순 마을기록가**를 만났다. 김영순 기록가는 **금남면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만나 **마을의 옛 모습과 장소에 얽힌 기억을 수집**하고 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오래된 가게와 마을의 지명, 사라져 가는 풍경 속에서 세종의 역사를 발견하는 일이다.

지난 만남에서 그는 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의 활동과 발간 도서를 살펴보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을 나누었다. 특히 세종의 인물과 기차역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책에 관심을 보이며, 지역의 기록이 연구를 넘어 전시와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센터와 마을문화기록가가 각자의 현장에서 쌓아 온 자료와 경험을 나눈다면, 세종 곳곳에 남아 있는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순 기록가는 **"세종연구원이 하는 일을 직접 접하면서 세종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 세종연구원과 세종마을문화기록가가 협업해 세종을 좀 더 흥미로운 도시로 만들어 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 "세종마을기록문화관 다담"에 올라온 기록가님의 글
https://www2.sejong.go.kr/sejongmaeul

세 번째 컷!

# 알알이 고운 세종

- 조치원 필름 로맨스
- 조치원에 'ㄱ'이 생겼다
- (세종시 지역작가) 장승아 개인전 '사이사이'

세종지역학센터

# 조치원의 가을밤, 조치원 필름 로맨스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조치원문화정원**에서 **제4회 '조치원 필름 로맨스'**가 열렸다. **시네마다방이 마련**한 이번 독립영화제는 **"영화가 망한다고 네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야!"**라는 슬로건 아래 **단편영화 27편**과 **관객이 만나는 자리**로 꾸려졌다. 올해는 영화제 개최 이후 처음으로 세종시장이 현장을 찾기도 했다.

개막작 〈사이먼〉을 시작으로 사흘간 이어지는 상영 프로그램에는 관객과의 대화, 상영작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됐다. 첫날에는 '드림스컴트루' 공연이 편성돼 영화의 여운을 공연으로 이어갔다. 일부 작품에는 시각화면해설을 제공해 관람의 문턱을 낮추고자 했다.

**조필로의 또 다른 매력**은 **영화를 만나는 방식**에 있다. 별도의 예매나 관람료 없이 개인 의자와 돗자리를 가져와 영화를 보고, 음식을 먹거나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일상의 편안함 속에서 독립영화를 접하고, 작품을 만든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열린 영화제를 지향**한 것이다.

옛 정수장이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조치원문화정원에서 영화는 사람과 지역을 잇는 매개가 된다**. 조치원 필름 로맨스는 다양한 창작자의 시선을 소개하며, 가까운 곳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을 세종의 가을에 더하고 있다.










# 조치원에 'ㄱ'이 생겼다

## 한글로(路) 조치원

오랫동안 비어있던 역사의 한편이 이제 조치원을 알리는 새로운 장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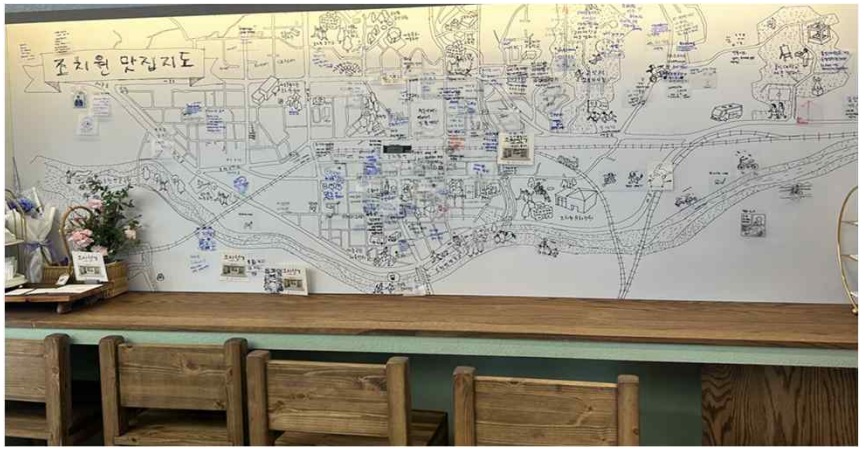
한글의 첫 글자 'ㄱ'처럼, **'조치원ㄱ'은 조치원을 만나고 기억하는 새로운 시작점**이다. 오랫동안 쓰임을 잃었던 철도역의 작은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만든 곳으로, **한글과 조치원의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로컬콘텐츠 거점**이다. 세종시와 한국철도공사 등이 협력해 공간을 발굴했으며, 세종시가 추진하는 '한글로(路) 조치원' 사업의 하나로 조성되었다.

**한글의 첫 자음인 'ㄱ'**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동시에 **'조치원에 가다(GO)', '조치원을 기억하다'**라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ㄱ'에 가면 커피와 디저트뿐 아니라 한글을 활용한 상품과 지역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로컬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단순히 머물다 가는 역사의 편의공간을 넘어, **조치원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지역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다시 원도심으로 발걸음을 이어주는 **작은 안내소이자 문화공간**을 지향한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조치원역에서 한글과 지역의 이야기를 만나고, 다시 조치원 곳곳으로 연결되는 출발점. '조치원ㄱ'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에서 조치원을 '가고', 보고, 오래 '기억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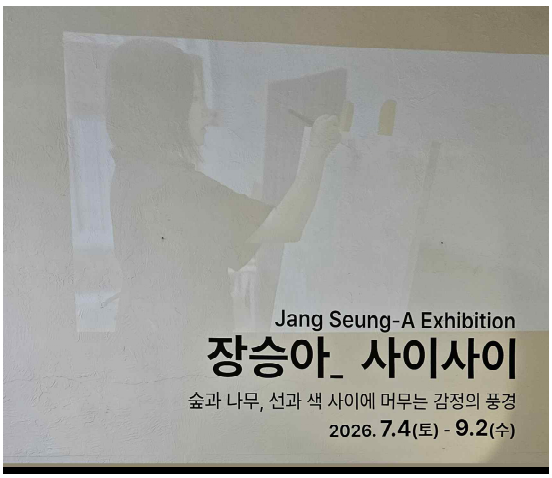
# 숲과 나무 사이, 장승아 개인전 <사이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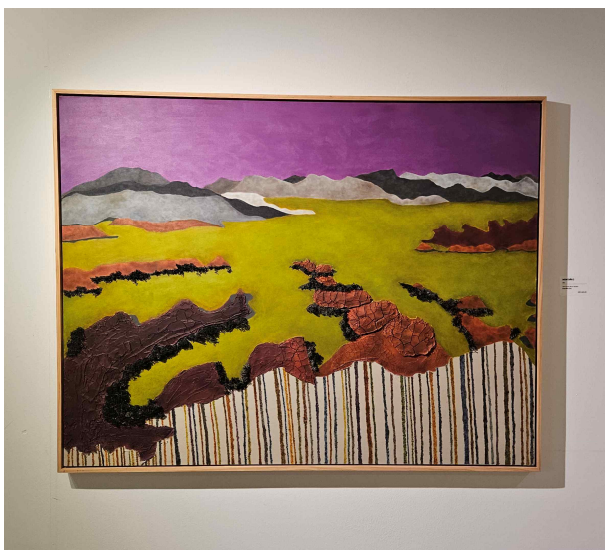
지난 7월 4일부터 9월 2일까지 충주 깊은산속옹달샘 옹달샘미술관에서 장승아 작가의 개인전 〈사이사이〉 가 열렸다. 세종에서 작업을 이어온 장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MONTAÑA'와 'BOSQUE' 연작 등 총 18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장승아의 그림 속 풍경에는 삶의 시간과 감정, 기억이 겹겹이 담겨 있다. 반복되는 수직의 선은 나무의 형상이면서 삶을 지탱해 온 시간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산의 능선처럼 포개진 색면과 깊이 스며든 색은 관람객이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비추어 볼 여백을 남긴다. 멀리서 하나의 숲으로 보이던 화면도 가까이 다가가면 붓질과 색의 번짐, 재료의 질감이 드러나며 새로운 풍경으로 다가온다.

숲속에 자리한 미술관의 환경도 전시와 맞닿아 있다. 숲길을 지나 전시장에 들어서면 바깥에서 마주한 나무와 그림 속 풍경이 이어진다. 작가는 이번 전시가 세종에서 이어온 작업과 충주의 자연이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사이사이〉는 선과 선, 색과 색 사이에 머물며 각자의 마음속 풍경을 천천히 들여다보도록 초대하는 전시였다.







네 번째 컷!

# 세종의 물결 너머

- 부산에서 마주한 세계유산, 세종 지역학의 내일을 그리다
- 유산에서 산업으로, 지역의 기억을 미래의 자원으로
- 지역의 기록을 담는 그릇 – 제4회 대전 아카이브 포럼
- 제주에서 만난 지역문화의 새로운 활용법

세종지역학센터

# 부산에서 마주한 세계유산, 세종 지역학의 내일을 그리다

##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 대한민국관

지난 7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K-Heritage House)'** 현장에 다녀왔다. 우리나라가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지 38년 만**에 처음 개최한 뜻깊은 행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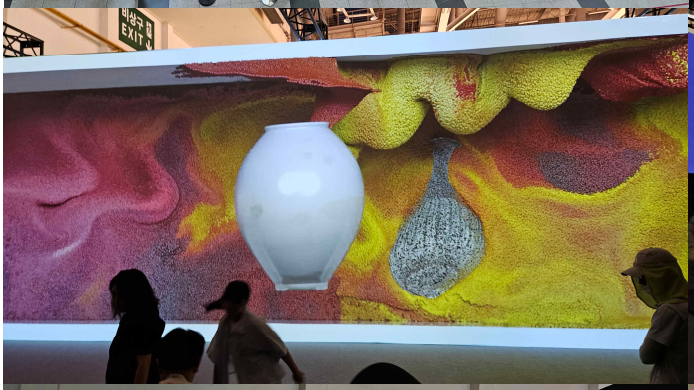
현장에서는 서울 경복궁에서만 볼 수 있었던 대규모 수문장 교대의식이 부산 한복판에서 재현되고, '개최도시 부산관'을 통해 피란수도로서의 부산의 역사가 당당히 세계유산의 반열에서 소개되었다. 이렇듯 **'지역의 기억'을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의 유산'으로 확장하기 위해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지역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록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일은 세계유산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부산에서 만난 지역문화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세종 곳곳에 남아 있는 역사와 문화자원을 다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지역학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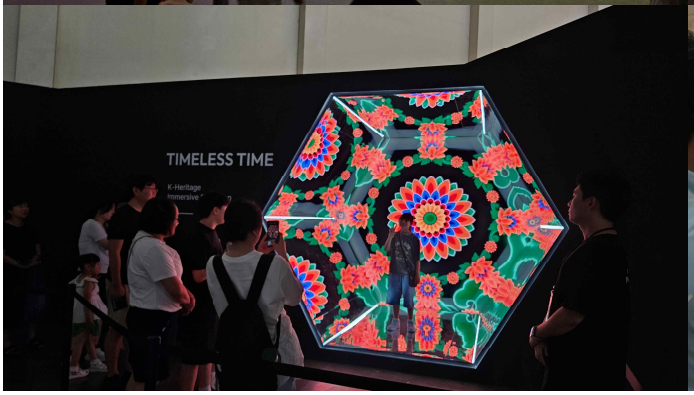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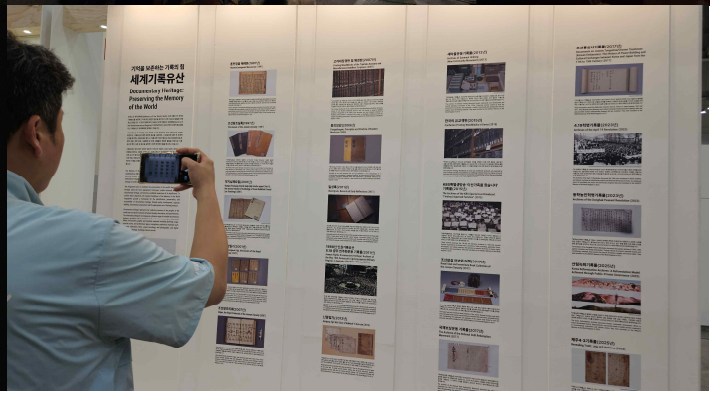










# 유산에서 산업으로, 지역의 기억을 미래의 자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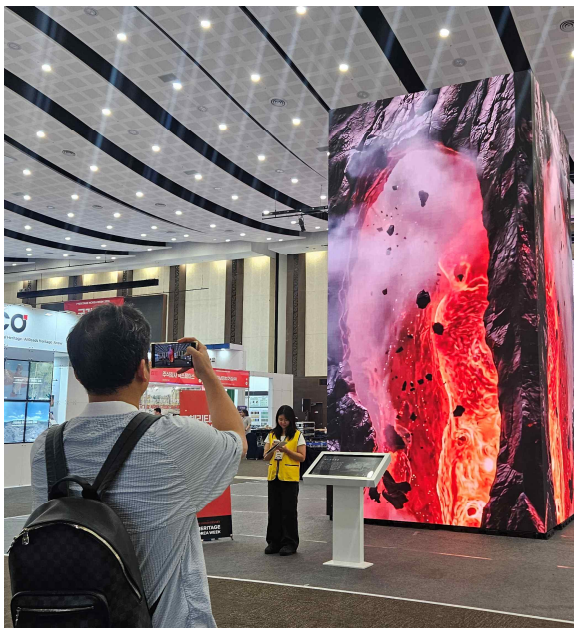
## 경주 세계국가유산 산업전

경주에서 열린 「2026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은 국가유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보존에서 활용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학에도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지역의 인물과 마을, 시장과 생활문화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일 역시 지역의 기억을 남기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축적된 기록과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전시 · 교육 ·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낼 때, 지역의 문화자원은 오늘의 삶과 연결될 수 있다.**

세종에도 신도시의 성장 과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원도심과 읍 · 면 지역의 역사, 오래된 시장과 마을, 지역의 인물과 생활문화가 남아 있다. 이러한 자원들이 지역의 소중한 유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거의 유산을 현재의 자원으로 바라본 경주의 사례처럼, 세종의 지역문화자원 역시 기록을 넘어 시민의 삶과 만나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지역의 기록을 담는 그릇

## 제4회 대전 아카이브 포럼

지난 27일 열린 **제4회 대전 아카이브 포럼**은 **지역학에서 기록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자리**였다. 대전기록원 설립과 지역기록원의 가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의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을 지역 스스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자치'**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전국 최초 광역 기록원인 경상남도의 운영 사례나, 옛 대전부청사를 시민 개방형 기록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대전의 청사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단순히 낡은 문서를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고 흩어진 기억을 모아 지역사회를 짓는 **살아있는 문화 생태계**임을 보여주었다.

옛 연기군의 역사와 신도시의 모습이 함께 존재하는 **세종 역시 기록해야 할 이야기가 많은 도시**다. 이번 포럼을 통해 세종의 변화와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남길 것인지, 지역학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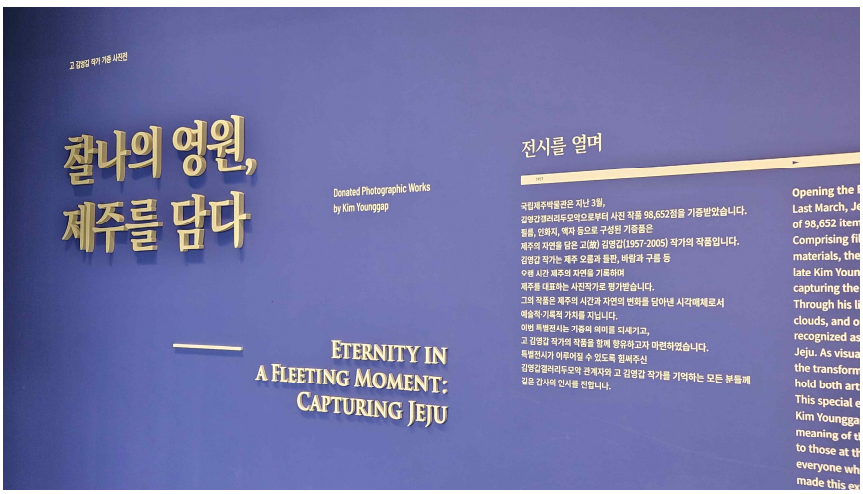


# 제주에서 만난 지역문화의 새로운 활용법

## [국립제주박물관] 찰나의 영원, 제주를 담다 – 故 김영갑 작가 기증 사진전

세종지역학센터는 지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주를 찾아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현장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고 김영갑 작가의 기증 사진전 《찰나의 영원, 제주를 담다》**를 통해 한 예술가의 기록이 지역을 이해하는 문화자원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1985년 제주에 정착한 김영갑 **작가는 20여 년간 제주인의 삶과 오름을 비롯한 자연의 모습을 꾸준히 사진에 담았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남긴 9만 8천여 점의 기증 작품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작품에 별도의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는 작가의 의도는 관람객이 정해진 해석에 앞서 작품을 직접 마주하고 자신만의 시선으로 감상하도록 이끈다.

이번 사례는 **한 개인이 오랜 시간 축적한 기록도** 적절한 보존과 해석, 전시를 거쳐 지역을 이해하는 **공공의 문화자산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지역의 기록을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과정**이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세종에도 지역의 역사와 인물, 예술가, 생활문화를 담은 다양한 기록이 남아 있다. 앞으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세종의 기록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민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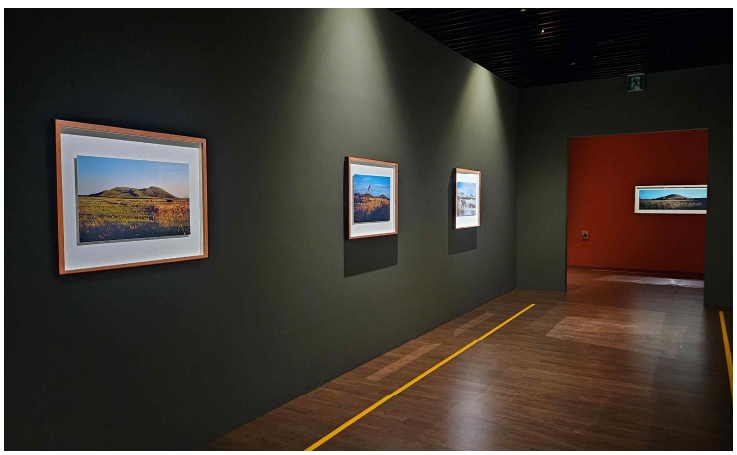

# 제주에서 만난 지역문화의 새로운 활용법

## 제주도 지역문화 활용 사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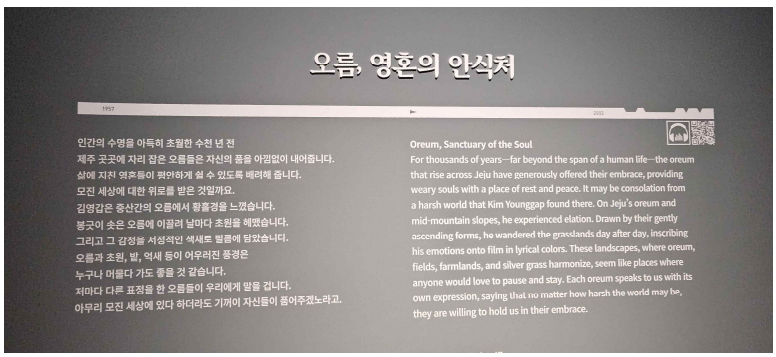












# 금남 대평시장에서 점심을

## 2026 금남대평시장 가치회복 리빙랩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앵커사업단 금남대평시장 가치회복 리빙랩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금남대평시장에서 점심을'**을 소개합니다!

'금남대평시장에서 점심을' 프로젝트는 **홍익대학교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시장의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새롭게 만나는 행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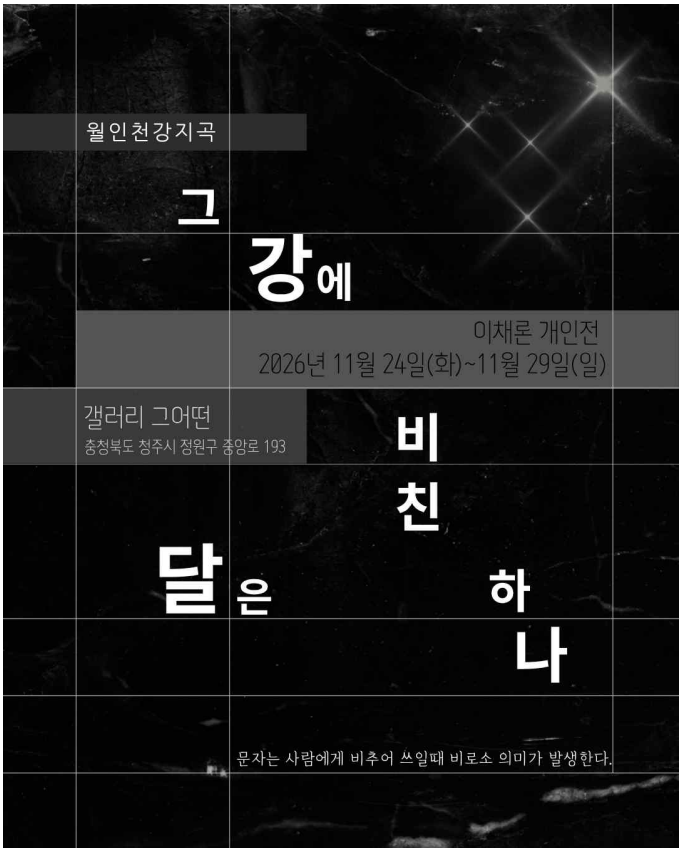
**10월 14일 오전 11시 오픈행사**를 시작으로,

16/23/30일 **매주 금요일 금남대평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주최 · 주관 : 세종특별자치시 /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ANCHOR 사업단

# 월인천강지곡: 그 강에 비친 달은 하나

## 세종시 지역작가 이채론 개인전




**달**은 하나지만, 땅의 무수한 강물은 저마다의 달을 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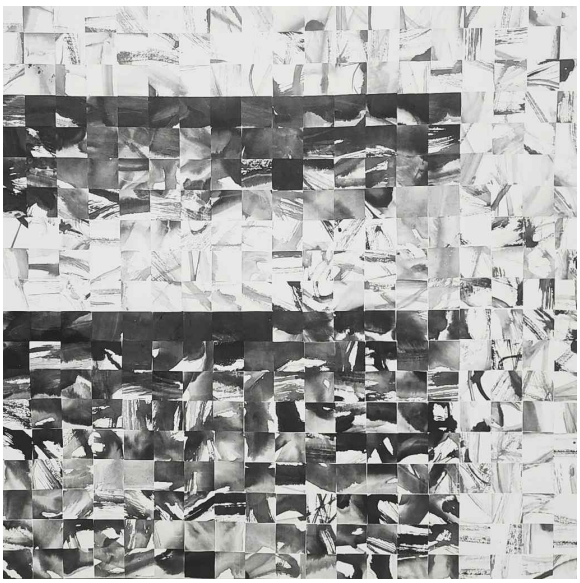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세종대왕이 소헌왕후를 위해 지은 한글 찬불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의 뜻을 빌려,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으나 수만 가지 삶의 모습으로 파생되고 흩어지는 **'동시대 한글'의 경이로움을 조명**합니다.
훈민정음 반포 이래 가장 파격적으로 해체되고 재조립된 이 현대의 언어들은, 언뜻 바스라진 파편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한글이라는 단단한 본질을 잃지 않은 채 우리의 일상을 투영합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두 가지 상반된, 그러나 서로를 긴밀히 보완하는 매체적 실험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수묵모자이크' 작업**은 수많은 사각형의 먹 조각들이 픽셀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하나의 거대한 수묵언어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각 조각에 담긴 붓질과 먹의 농담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들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아득하고 묵직한 깊이감은 우리가 속한 거대한 '언어 공동체'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증명합니다.
반면, 널리 퍼뜨리기 위해 목판으로 글자를 찍어내던 인쇄 기술 중 하나인 **'실크스크린 모노타입' 작업**은 반복적인 격자 구조 속에서도 결코 완전히 같아질 수 없는 언어의 개별성을 보여줍니다. 일정한 문자의 틀 안에서 다채로운 색상과 예측할 수 없는 질감이 끊임없이 변주되며, 이는 같은 글자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와 감정으로 발현됨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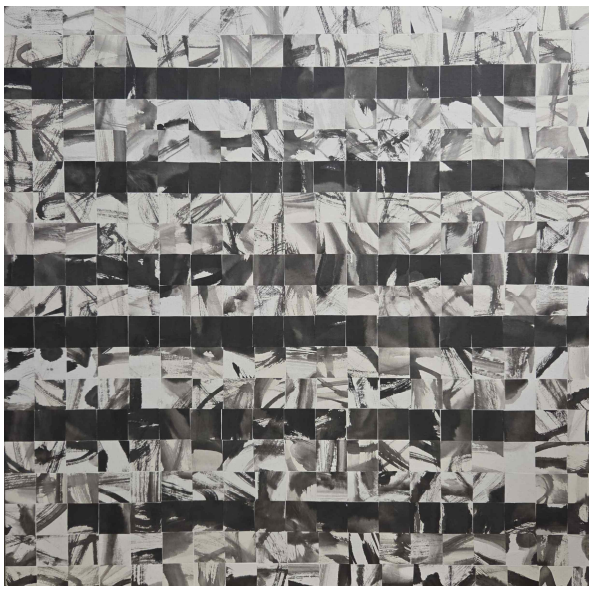
가장 전통적인 철학과 가장 현대적인 언어가 만나는 이번 전시에서, 천 개의 강물에 비친 당신만의 달빛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월인천강지곡: 그 강에 비친 달은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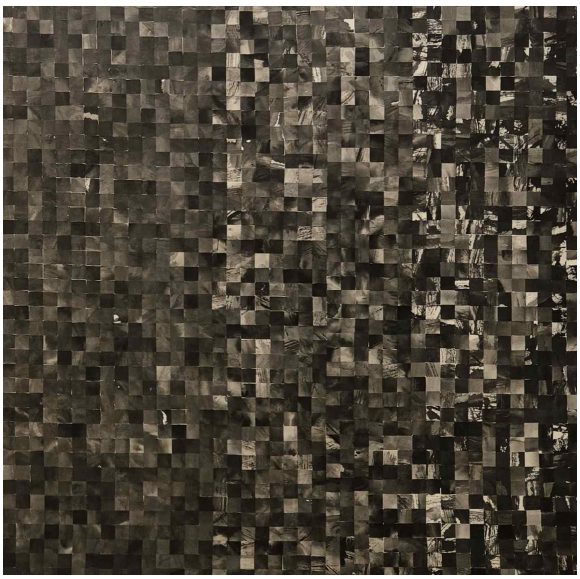
## 세종시 지역작가 이채론 개인전



▲ 토글드 레터스 중 'ㅋ'
(수묵모자이크, 72.7cm×72.7cm, 2025)



▲ 선을 위한 멜로디
(수묵모자이크, 72.7cm×72.7cm, 2026)



▲ 달은 하나 I
(수묵모자이크, 72.2cm*72.7cm, 2026)



▲ 달은 하나 II
(수묵모자이크, 72.2cm*72.7cm, 2026)

이채론 개인전

월인천강지곡 : 그 강에 비친 달은 하나

2026년 11월 24일~29일, 그어떤 갤러리(충북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193)

## 작가 노트

나에게 한글은 천 개의 강에 비친 달과 같다. 세종이 빚어낸 숭고한 문자 체계는 오랜 시간을 거쳐 오늘날 사람들의 입과 손끝에서 그리고 시대 속에서 낯설고 유희적인 파편들로 부서지고 흩어지기도 한다. 신조어가 등장하고 한글이 변화한다. 누군가는 이를 언어의 훼손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나는 살아 숨 쉬는 문자의 본질, 언어의 강인한 생명력에 주목했다. 문자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쓰일 때 비로소 고유한 의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시대 언어의 특성을 시각화하기 위해 나는 먹과 실크스크린이라는 두 가지 매체를 교차시키며 나의 작가적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수묵모자이크 작업은 수많은 사각의 파편들을 잇고 붙이는 수행적인 과정이다. 짙고 옅은 먹물이 스며든 각각의 조각들은 우리 언어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과 같다. 파편화되고 가벼워진 인터넷 언어들 이면에도 결국 인간 소통의 무게가 존재하며, 나는 이 작은 조각들을 군집시켜 겹겹이 쌓인 흑(黑)의 무한한 깊이감으로 그 무게를 화면 위에 구현해냈다. 조각들이 모여 빚어내는 거대한 추상적 흐름은 흩어져 있으나 결국 하나로 연결된 우리의 모습이다.

동시에 진행된 실크스크린 작업은 언어의 복제와 확산에 대한 탐구다. 과거 한글이 세상에 반포되어 쓰이기 위해 수없이 목판으로 찍어내야 했던 것처럼, 나 역시 스퀴지로 잉크를 밀어내며 문자를 반복해서 찍어낸다. 그러나 나는 단순한 기계적 복제가 아닌 '모노타입' 방식을 택했다. 캔버스 위에 격자 형태로 문자의 틀을 반복적으로 배열하면서도, 그 안을 채우는 색과 질감은 매번 다르게 변주했다. 판을 거쳐 나오며 만들어지는 거친 붓결, 물감의 번짐, 그리고 다채로운 색면의 우연성은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사람마다 담아내는 뉘앙스와 삶의 결이 다름을 의미한다.
먹으로 파편을 엮어내어 깊이를 만들고, 실크스크린으로 다채롭게 찍어내어 퍼뜨린다. 이 두 가지 행위는 한글을 다루는 나의 방식이자, 문자가 가진 공동체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끌어안는 나의 태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달이라는 것은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의 상징이다. 달님에게 소원을 비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수많은 문학가들은 달을 노래했을까. 따뜻함과 빛, 생명의 상징은 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달은 사람들의 깊은 소원과 설움과 슬픔을 어루만지는 포용의 상징과 같다. 어쩌면 전래동화 '햇님과 달님'에서 누이의 무서움을 품기위해 자신의 역할을 내어준 오라비의 마음이 담겨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문자가 없던 백성에게 빛이 된 한글은 어쩌면 해이기보다 달에 가깝지는 않을까. 내 화면 위에서 바스라지고 흩어진 문자들이 관객이라는 또 다른 강물을 만나 새로운 의미의 달로 떠오르기를 기대한다.

# 이재민의 '문화로 만난 세종'

세종의소리(www.sjsori.com)



## "중앙공원, 열린 성격 살리고 미술 공간 독자성 확보해야..."

세종중앙공원은 세종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다. 산책과 휴식, 가족 여가와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시민의 일상 공간이면서, 세종축제와 보헤미안 락 페스티벌, 낙화축제 같은 대규모 문화...

칼럼 | 세종의소리 | 09-29 09:12



## 서울 광주 등 다른 지역 미술관, 참고하라

세종시 중앙공원에 위치할 한글 미술 공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미술관 사례를 볼 필요가 있었다. 즉 이 공간이 놓인 조건으로 살펴보았는데, ①공원 안에 자리한다는 입지, ②작품을 보관하면서 ...

칼럼 | 이재민 | 09-17 08:24



## 한글미술관, 건물보다 콘텐츠가 먼저다

세종은 도시 출범 이후, 오랫동안 한글문화도시를 말해왔다. 한글날이면 축제가 열리고, 한글을 주제로 한 교육과 캠페인이 이어지며, 지난해에는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가 42일 동안 5만 명이 넘는 관람객...

칼럼 | 이재민 | 09-09 14:22



## 가네코후미코 100년, 기억의 시작이다

가네코 후미코가 옥중에서 생을 마친 지 100년이 되는 해, 세종 부강에서 그의 이름을 다시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7월 24일 세종시 부강면 가네코 후미코 다실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추모 위령제는 ...

칼럼 | 세종의소리 | 07-30 09:01



## "지역 자산 디자인하고 로컬 브랜딩하자"

세종은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다. 국가적 전략에 의해 건설된, 말 그대로 '만들어진' 도시라는 뜻이다. 그러나 새로운 전략과 계획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삶터로...

칼럼 | 세종의소리 | 07-12 06:20



**이재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문화정책)·세종지역학센터 센터장, 영남대(석사), 국립안동대(박사), (전)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연구교수, (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도시문화경영학과 겸임교수, (현)세종시 세종학진흥위원회 위원·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현)콘텐츠문화학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 culture@sri.ac.kr

# 세종지역학 소식지 <세종 '네' 컷>

제9호 (2026년 9월)

발행인 : 권영걸 원장(세종연구원)

기획 : 이재민 센터장(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세종지역학센터)

이자은 책임연구위원(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혜원 위촉연구원(세종지역학센터 위촉연구원)

원고 작성 : 이재민 센터장(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세종지역학센터)

이자은 책임연구위원(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혜원 위촉연구원(세종지역학센터 위촉연구원)

사진 촬영 및 편집 : 이재민 센터장(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세종지역학센터)

이혜원 위촉연구원(세종지역학센터 위촉연구원)

발행일 : 2026년 9월 30일

세종지역학센터